

문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

답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 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성경적 근거: 사도행전 3:21-22; 히브리서 5:5-7, 4:14-15, 7:25; 요한계시록 19:16; 이사야 9:6-9; 시편 2:6, 8-11; 마태복음 21:5; 답 21 참고

질문 1: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구약 성경의 어떤 3 직분을 포함하는 것인가?

질문 2: 선지자의 직분은 무엇인가?

질문 3: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인가?

질문 4: 왕의 직분은 무엇인가?

질문 5: 이 3 직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질문 6: 그리스도께서는 왜 낮아 지셨는가?

질문 7: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설명:

이미 공부 했지만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야”와 동등한 말이며 “유일하게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한 몸에 지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구속주를 말한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처음엔 이 3 직분이 나뉘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브라함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 3 직분이 분활화되게 되고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전문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을 제사장의 일을,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그리고 왕은 왕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3 직분을 감당했었다. 창세기 20:7 절에는 그가 선지자의 임무를 담당했고, 창세기 13:4 절에서는 그가 제사장의 임무를 담당했으며, 창세기 14:1-2, 13, 17-24 절에서는 그가 왕의 임무를 담당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 세워지며 사무엘선지자의 시대에 와서는 국가와 왕이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다.

사무엘상 2:35 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예언으로 그가 마지막 제사장으로 오실것을 말하고 있다.

사무엘하 7:12-16, 시편 2, 72, 110 장과 그 외에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와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이 오실것을 말씀하셨다.

또 신명기 18:15-20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오실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

아브라함도 홀름했고 모세도 홀름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구속자가 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역사가운데 수많은 리더들이 세워졌다. 그러나 그 아무도 영원한 구속주가 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영원한 구속주가 아직 이 땅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속주가 되신 것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의무를 감당하셨다. 이 3 직분을 한 몸에 지닌 분만이 진정한 메시야가 될 수 있으며 구속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지자의 직분은 무엇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며 신비한 메시지를 전했던 대변인들이다. 선지자들의 역할중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했으며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예언자의 일도 함께 감당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과거와 당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선지자로 오셨다.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다면 제사장은 사람들의 대언자였다.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직분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데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사람대신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악을 씻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 제사장의 임무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담당하셨다.

왕의 직분은 무엇인가? 왕에게는 왕국을 다스리는 임무가 주어졌다. 왕의 가장 핵심되는 임무는 바로 효과적이며 의롭게 왕국을 다스려 왕국안에서의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왕은 적의 침략으로 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왕은 주권적인 인물로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께서서도 주권자 되신다.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에 그는 주권자 되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그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신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왕이 되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상의 한 왕국을 통치할 왕으로 오셨으면 하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셨다.

메시야는 기름 부음을 받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 (열왕기상 19:16), 제사장 (출애굽기 28:41), 왕 (사무엘상 10:1),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서도 신약 성경의 여러군데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볼 수 있다. 예수가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3 직분을 분리 시켜서는 않된다. 예수님의 3 직분을 나눠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하게 위해서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3 직분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요구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그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전의 어떤 선지자도 그와 같이 뚜렷하게 하나님을 증거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들로써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함께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신 분이다. 그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갈 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써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는 우리의 주군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함께 왕의 직분을 주셨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진리이다. 이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메시아의 사람들이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의 3 직분은 또한 교회에 다음의 세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함이 있어야 한다.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과 일치한다. 둘째, 교회에서는 2 가지 성례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이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교회가 아니다. 이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일치한다. 셋째,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치리와 다스림이 필요하다. 이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 것은 예수님의 왕 되심과 일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권한과 위치와 자격을 뺏내고 자랑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는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기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의 겸손을 통해 오히려 높이 세움을 받은 존귀한 자로 세워졌으며 모두가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할 수 밖에 없게 하셨다. (빌립보서 2:5-11)